

# 진짜와 가짜, 혹은 “두 왕비”: 『산문 란슬롯』의 가짜 귀네비어 에피소드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여성 발화

김문진

## 들어가며

아서왕 로맨스에는 여성들 간 더블링(doubling)과 대체의 모티브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트리스탄(Tristan)과 사랑에 빠진 왕비 아름다운 이조데(la belle Isode)는 남편인 마크 왕과의 결혼 첫날밤에 시녀인 브랑게인(Brangain)을 대리로 들여보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다른 한 편 이조데와의 간통이 발각된 트리스탄은 그녀와 이별한 뒤 또 한 명의 이조데인 흰 손의 이조데(Isode le Blanchés Mains)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여타 로맨스 텍스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비안(Vivianne)이나 니니안(Ninianne)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호수의 귀부인(lady of the lake)이 토마스 말로리(Thomas Malory)의 『아서왕의 죽음』(*Le Morte Darthur*)에서는 둘로 갈라져서, 기존의 호수의 귀부인이 살해당한 뒤 그녀의 시종인 네니브(Nenive)가 그 역할을 물려받는 것 또한 일종의 더블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되고 바뀌치기 되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두드러지는 것이 13세기 프랑스 아더왕 로맨스인 『산문 란슬롯』(*The Prose Lancelot*)에 등장하는 가짜 귀네비어(false Guenevere)이다. 귀네비어 왕비의 이복 자매인 그녀는 홀연 로그레스(Logress) 왕궁에 나타나 자신이 진짜 왕비라고 주장함으로써 궁정을 혼란에 빠트리며, 급기야 란슬롯과 아서 사이의 결별과 로그레스 궁정의 분열이라는 정치적인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하나의 이야기로 따로 읽을 수 있을 만큼 길이가 길고 완결된 플롯을 가진다는 점 외에도, 가짜 귀네비어 에피소드는 거짓 인물이 원 인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면으로 도전하며 결국은 일시적이거나 진짜를 쫓아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두 여성이 하나의 정체성을 두고 대결함에 따라 에피소드는 필연적으로 남성 인물들과 독자 양측에게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나아가 남성이 보는 여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모건 딕슨(Morgan Dickson)은 로맨스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성 더블링’(female

doubling)과 근대소설에서 주로 남성인물과 연결되는 ‘더블 피겨’(double figure)를 구분한다. 디슨에 따르면 남성의 주체성과 내면에 대한 의문제기로 기능하는 남성 더블과 달리, 여성 더블링은 여성인물의 자성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남성인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이 수동적으로 “복제된”(doubled; Dickson 61) 결과물이다. 디슨의 이론은 가짜 귀네비어 사건이 남성담론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는 점을 잘 설명한다. 가짜 귀네비어에 의해 제기되는 여성 정체성의 문제는 엄밀히 말해 남성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정체성의 문제이며, 귀네비어 자매의 구분되지 않는 두 몸은 그 쓰임이 나누어지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남성적 관계와 욕망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디슨의 이론을 따라 가짜 귀네비어 사건을 여성이 남성을 위해 도구화되는 한 예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 에피소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읽는 행위이다. 왕비의 복제된 두 몸은 분명히 남성적 담론을 구현하고 강화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여성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몸을 가진 여성의 말하기를 통하여 행해진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은 자신을 창조해낸 남성 중심적 토대 자체를 다시 보게 하고 그것의 허점을 드러낸다.

### 귀네비어의 복제되는 몸

가짜 귀네비어 에피소드는 클리스(Clice)라는 여성이 느닷없이 아서의 궁정을 찾아 오면서 시작된다. 그녀는 자신을 보낸 여주인이 귀네비어의 고향 카멜리드(Carmelide)의 공주이자 로그레스의 참된 왕비인 귀네비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아서와 함께 살던 귀네비어는 진짜 왕비를 결혼 초야 직후 납치하고 왕비 행세를 해온 가짜라고 고발한다. 클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가짜 귀네비어의 편지를 읽은 아서는 고발의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고자 그녀를 로그레스로 불러들이지만,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예감한 그녀는 아서를 납치한 뒤 회유하여 자신이 진짜 왕비라고 믿게 만든다. 죄인으로 몰린 진짜 귀네비어는 연인인 란슬롯이 그녀를 위해 결투 재판(trial by combat)에 나섬으로써 가까스로 처벌의 위기를 넘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두 귀네비어가 다른 인물들에게는 물론 텍스트의 차원에서조차 너무나 쉽사리 혼동된다는 점이다. 아서는 두 귀네비어가 대면도 하기 전 가짜 귀네비어의 편지만을 읽은 상태에서 이미 “그녀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으며 그녀가 실제로 상속을 박탈당했을 것”(she had good grounds for her claim and had indeed been disinherited; 262)이라고 뚜렷한 이유 없이 믿어 버린다. 그녀가 아서를 좌지우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약과 주술”(drugs and spells; 268)이 언급되기 전부터, 가짜 귀네비어에게 납치당한 아서는 그녀와 몇 차례 만난 끝에 애정이 싹터 “마침내는 왕비를 향한 사랑을 잊고 만다”(at length, he forgot his love for the queen; 264). 진짜

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간단히 새로운 귀네비어를 받아들이는 아서나 그녀를 주인으로 믿는 카멜리드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란슬롯의 친우이자 시종일관 진짜 귀네비어의 대변자로 활약하는 갈레훗(Galehaut)조차도 왕비가 원고 측 주장대로 가짜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는다(272).

텍스트는 이러한 혼동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두 귀네비어를 묘사한다. 에피소드가 상당히 진행되어 가짜 귀네비어의 신상이 처음으로 드러날 때까지 새로운 귀네비어의 의도나 고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다(262). 독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궁정에서 “그 고발을 들은 누구 하나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공포를 잠재울 수 없었다”(no one who had heard the accusation could still the fear that it might be true; 248)는 불길한 설명뿐이다. 제인 번즈(E. Jane Burns)의 말마따나 “고대 프랑스어 텍스트는 결코 한 귀네비어를 ‘진짜’, 다른 쪽을 ‘가짜’라고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며”(the Old French text never labels one Guinevere “true” and the other “false”), 이에 독자들은 그녀의 정체성이 갖는 “어지러운 불확실성”(the dizzying uncertainty; “Which Queen” 249)과 맞닥뜨린다. 가짜 귀네비어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서술은 “자격 없는 여성”(the woman who had no right to be; 268) 정도이며, 다른 호칭, 예를 들어 “귀네비어의 고발자”(Guenevere’s accuser)나 “그녀의 적”(her foe; 267)은 그녀가 기존의 귀네비어와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지칭할 뿐 정말로 그녀가 가짜나 악인인지는 드러내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아서가 가짜 귀네비어를 아내로 인정한 뒤 그녀의 호칭은 더욱 모호하게 변화한다. 가짜 귀네비어는 여러 차례 어떤 수식어도 없이 단순히 “귀네비어”(265, 267)라고 불린 끝에, 마침내는 진짜 귀네비어와 한데 묶여 “두 왕비들 중 하나”(one of the queens; 271)가 되기에 이른다. 기표 혹은 지칭의 차원에서, 이들은 구분 불가능한 두 ‘왕비’이며 ‘귀네비어’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짜 귀네비어의 태생에 대한 설명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두 귀네비어를 구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로맨스 장르에서 여성인물이 갖는 개별성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지 또한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카멜리드의 레오다간 왕에게는 몹시 아끼는 집사장이 있었으니 그 집사장의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하나였다. 왕은 그녀와 사랑에 빠졌으며,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왕과의 사이에서 ... 마찬가지로 귀네비어라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이 두 이복자매는 서로 너무나 닮아서 그들을 기른 이 들조차 거의 구분할 수가 없었다.

King Leodagan of Carmelide had a seneschal whom he was very fond of and who was married to one of the most beautiful women in the world. The king fell in love with her, and the story tells that she had a beautiful daughter with him . . . who was also named Guenevere. The

two half-sisters looked so much alike that the people who brought them up could hardly tell them apart. (262)

두 귀네비어가 혼동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이들의 외모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닮았다는 데 있다. 이 사실은 특히나 로맨스라는 장르 안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위협이 된다. 인용문에서 가짜 귀네비어와 그 어머니를 묘사하는 ‘아름답다’(beautiful)는 수식어에서도 알 수 있듯 여성의 외모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외모라기보다는 남성의 시선과 욕망과 평가를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미모’로서, 여성을 남성을 위한 대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기사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무용과 경쟁 가능한 가치라고 여기는 필적할 수 없는 엘레인(Elaine the Peerless)의 예처럼, 로맨스 안에서 미모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자 인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최우선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같은 외양의 여성이 둘 존재한다는 것은 두 인물의 가치적 우열, 다시 말해 진위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위의 인용에서 두 귀네비어 간의 외양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연결점은 그들이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이다. 인물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부계혈연에 의해 규정되는 로맨스 텍스트 안에서 두 여성이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요컨대 같은 어머니를 둔 것보다) 중대한 연결고리가 된다. 실제 두 귀네비어의 쌍둥이처럼 닮은 외모도 어디까지나 그들이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이며, 자매의 모계혈연은 둘을 구분하는 데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가짜 귀네비어는 스스로를 묘사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자신의 부계혈연에 의존한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의 첫머리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하고(246), 그녀의 대변자 클리스도 아서가 레오다간을 찾아가 귀네비어를 그의 딸로서 처음 만났음을 지적한다(262). 아서의 궁정에 나타났을 때, 가짜 귀네비어는 가장 먼저 “신께서 카멜리드의 레오다간 왕의 딸, 귀네비어를 보호하시기를”(God save Guenevere, daughter of King Leodagan of Carmelide; 262) 기도한다. 번즈가 읽은 대로 이 기원에서 그녀가 왕비를 축복하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스스로를 지칭하여 두 인물의 구분을 흐린다면(“Which Queen” 250),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묶는 아버지의 핏줄이다. 그러므로 가짜 귀네비어가 몇 번이고 자신의 부계 혈통을 강조함으로써 귀네비어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다를지언정 두 귀네비어는 “레오다간 왕의 딸”이라는 가부장제적 지위를 공유하기에, 남성(아버지)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두 귀네비어 간의 이러한 교체와 혼동은 로맨스 텍스트 안에서 여성인물의 정체성이 여러 차원에 걸쳐 ‘대상적인 몸’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몸이란 동일한

외모라는 (기실 이 또한 이미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층위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두 자매를 구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가부장적 남성 혈연이라는 상징적인 육체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위치 짓는 남성중심적인 질서와, 여성이 그 질서 안에서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인물이 자신의 내면보다는 남성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의미를 부여받고, 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물리적·상징적 양면으로 소유되거나 이동되는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가짜 귀네비에어에 의해 두 왕비가 “레오다간 왕의 딸”로 동일시 될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딸’이라는 가부장적 관계를 체현하는 존재들이 된다. 유사하게, 가짜 귀네비에어는 아서가 레오다간 왕으로부터 “그녀의 손과 함께 건네받았던 고귀한 선물”(the noble gift that [he] received with her hand; 247)인 원탁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협박한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남성 간 교류/대화인 혼인관계 속에서(Brooke-Rose 308) 여성은 그 혼인을 가시화하는 원탁과 다름없는 존재, 즉 한 남성에게서 다른 남성으로 (상징적으로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넘겨지는 손(육체)이며 대상이다.

번즈와 크리스틴 브룩로즈(Christine Brooke-Rose)는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과 언어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을 논한다. 번즈에 따르면 “여성임의 특수함은 생물학적 총체로서가 아니라 생문화학적 구성물로서의 몸에 매여 있으므로”(the specificity of femaleness can thus be tied to the body not as a biological entity but as a biocultural construct; Burns, *Bodytalk* 5), 실제 여성의 몸만 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을 남성을 위한 몸으로 존재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이다. 번즈는 여성이 침묵을 강요당하며 그로 인하여 남성의 의도와 의미부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에 실제적·비유적 차원 양쪽에서 “[여성은] 결여, 침묵, 재현 불가능성으로서 ... 남성 주체의 구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as absence, silence, and nonrepresentability . . . [woman] provides the groundwork for the construction of male subjectivity; *Bodytalk* 4). 유사한 맥락에서, 브룩로즈는 여성이 남성 간 “교환의 대상”(object of exchange)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실제 인간관계부터 시작하여 언어와 사고 체계까지 포괄하는 “의미작용의 기본적인 구조”(the elementary structure of significance; 307)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소유되고 대상화되는 여성의 몸(더 정확히는 침묵하기에 몸으로만 존재하는 여성)은 빈 기표에 비교되는데, 이는 여성의 몸이 남성들 사이에 교환되고 그를 통해 관계와 의미를 창출하는 “사회적 삶의 문법 안에서의 교환의 매개”(the media of exchange in the grammar of social life; 312)라는 점에서 언어와 유비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적) 사회적 삶이란 “영영 여성들의 침묵에 의존하며 ... 그들의 기의”(depends for aeons on women’s silence . . . suppresses their signified; 308), 즉 내면을 억압하

여 빈 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바탕으로 한다.

여성의 정체성이 먼저 남성에 의해 사용되는 육체의 차원에서, 그리고 남성 관계망의 매개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대상적 몸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같은 육체나 같은 매개적 위치에 다른 여성인물이 놓일 때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두 귀네비어는 똑같이 남성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아버지의 혈통에 의해 규정되고 동일한 남성의 아내의 위치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같은 몸’을 가진다. 가짜 귀네비어는 자신을 진짜 왕비로 재현하기 위해 반복해서 자신이 아서와 혼인 첫날밤을 보낸 여성이며 자신의 몸이 남성적 권위에 의해 “성유(聖油)가 부어지고 왕관이 씌워진”(anointed and crowned; 246) 왕비로 재구성된 대상임을 강조한다. 그녀는 아서를 납치한 뒤 그를 매일 방문하고 공손한 담화로 그를 즐겁게 하고 마침내는 “그와 매일 밤 잠자리를 같이 하는”(she slept with him every night; 264) 등,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역할을 그 몸으로 수행함으로써 아내의 위치를 인정받는다. 두 귀네비어가 동일한 외양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몸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관계를 표상할 때, 둘은 이론상으로는 구분될 수 없다.

진위가 불분명한 두 귀네비어를 구분하려는 남성들의 시도는 따라서 일차적으로 어느 한 쪽의 몸을 직접 변형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찬탈자의 몸은 “왕비로서 가지는 모든 신성한 표징”(all the sacramental marks of a queen; 269)을 잃어야 하므로, 재판관들은 아서가 유죄를 선언한 진짜 귀네비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바닥과 손가락의 피부를 벗겨내도록 명한다. 두 여성을 구분하기 위해 그 중 한 사람의 몸, 그것도 머리카락과 피부라는 몸의 표층을 훼손하라는 판결은 여성의 정체성이 남성에게 드러나는 한 겹 피부에 국한됨을 보여준다. 동시에 여기서 훼손되는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문화적으로 남성에 의해 구성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일찍이 그 몸에 더해지는 왕관과 성유와 반지가 그녀의 왕비로서의 지위를 상징했듯이, 그녀의 격하된 새 위치 또한 대응하는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형벌의 이유가 그녀(의 죄)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to be better recognized; 269)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은 문자 그대로의 텍스트(literality)를 여성의 몸, 그것에 행해지는 주해(gloss)를 남성적 폭력에 비교하는 캐롤린 디쇼(Carolyn Dinshaw)의 논의를 연상시킨다(114). 중세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글을 쓰는 행위(Dinshaw 9)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행위(17)가 모두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남성적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감안할 때, 귀네비어의 형벌은 왕비의 신체를 변형하여 진본과 위분을 구분하고 ‘왕비’ 대신 ‘찬탈자’(usurper)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새겨 넣는 문학적 작업과도 같다.

이후 가짜 귀네비어의 죄가 발각되는 장면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짜 귀네비어가 아서의 정식 아내가 되어 교황의 분노를 사고, 아서의 “모든 신하들까지

도 그녀를 싫어하게”(all the barons hated her; 275) 된 직후, 그녀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다.

그날 밤 그녀는 사지에 모든 힘을 잃고 눈을 제외한 온 몸이 마비되었으며, 그녀의 살은 발부터 썩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병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 부패의 시작과 함께 너무나 고태한 악취를 내뿜어 누구도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That night she lost all the strength in her limbs, so that she became paralyzed, except for her eyes, and her flesh began to rot from the feet up. The sickness lasted a long time, and . . . with the onset of the rot, gave off such a stench that no one could come near her. (275)

그녀의 몸에 나타나는 마비와 악취는 그녀가 자신을 왕비로 인정해주던 모든 사회적 기반(교황과 왕의 측근들)으로부터 배척받는 바뀐 환경과 그대로 연결된다. 또한 부패하고 불결한 그녀의 몸은 진짜 귀네비어에게 가하러 했던 처벌과 마찬가지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변화를 통하여 진위를 구별하고 그녀의 죄악을 증언한다. 그녀의 공범이었던 버틀레이도 비슷한 때 같은 병을 앓게 되며 아서도 얼마 뒤 병의 급습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물의 죄가 신체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여성인 귀네비어에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버틀레이의 경우 병든 육체 자체에 대한 묘사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아서의 경우에는 “눈이 멀 정도의 고통”(the pain [that blinds] his eyes; 276)과 죽음의 공포가 부각될 뿐 타인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변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가짜 귀네비어의 몸은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그녀의 정체성과 텍스트의 의미를 가시적으로 구현한다. 여성의 몸은 순수하게 물리적인 훼손을 겪을 때조차 (남성에게) 보이기 위한, 남성의 의미부여와 가치평가를 위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 간통하는 몸과 분열된 정체성

란슬롯이 귀네비어를 변호하기 위한 결투 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육체적인 형벌이 불가능해지자, 두 명의 귀네비어를 구분하기 위해 로그레스의 궁정이 택하는 또 다른 해결책은 왕비의 몸을 다른 장소와 맥락으로 옮겨놓음으로써 그녀의 존재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여성인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그녀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이미 살핀 바 있다. 여성은 남성이 형성하는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부여받고, 따라서 남성의 의도에 따라 하나의 질서 속에 머무르거나 다른 질서로 옮겨지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는 이동 가능한 대상이 된다. 이는 귀네비어의 처우를 결정할 때 남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재판을 앞두고 아서는 가웨인에



게 “왕비를 책임질”(to take charge of the queen) 것을, 그리고 때가 되면 그녀를 다시 자신에게 “양도하거나”(surrender her) “도로 데려올”(bring her back; 268) 것을 엄히 당부한다. 아서가 진짜 귀네비어를 부인함에 따라 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도 그녀를 (그녀의 아버지든 가웨인의 부왕이든) 어떤 가부장에게 보내어 위탁할지이며, 새로운 귀네비어도 같은 논리에서 아서의 땅에서든 그의 가신의 땅에서든 아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진짜 귀네비어가 있을 ‘자리’가 주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274). 그래서 아서는 자신의 우방이기는 하나 로그레스에 복속되지 않은 동등한 또 다른 지배자인 갈레훗에게 귀네비어를 맡기게 된다. 이에 귀네비어의 기사를 자처하는 란슬롯 또한 아서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를 따라 갈레훗의 영지로 떠난다.

귀네비어가 갈레훗의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은 란슬롯과 귀네비어의 연인 관계로 인하여 한층 더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가짜 귀네비어 사건을 여성의 (문화적·생물학적 양방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때, 귀네비어의 몸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간통하는 몸(adulterous body)이라는 점이다.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성의 몸이 여성인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면, 아서와 란슬롯이라는 두 명의 남성과 관계하는 귀네비어는 사실상 가짜 귀네비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비유적으로는 두 개의 정체성, 두 개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페기 맥크라켄(Peggy McCracken)은 로맨스 전통에서 간통하는 왕비로 그려지는 이조테와 페니스(Fenice)를 분석하며, 텍스트가 이들의 몸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몸의 해체(dis-memberment)나 더블링의 모티브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이조테가 두 남성과 관계한다는 사실이 그녀 자신의 몸을 찢거나 양분하는 비유를 통해 나타난다는 식이다(“Body Politic” 49).

맥크라켄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여성이 로맨스 안에서 몸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 즉 “간통에 대한 문학적 묘사가 몸의 비유적인 재현과 연결되는”(the literary account of adultery is related to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the body; “Body Politic” 47) 지점이다. 여성의 몸이 서사적 사건을 구현하고 그녀의 간통하는 몸이 텍스트라는 “의미체계”(systems of significance)의 일부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짜 귀네비어 사건에 적용한다면 귀네비어 자매의 구분할 수 없는 두 육체는 아서·귀네비어·란슬롯의 삼각관계가 귀네비어의 몸에 반영되어 나온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새로 등장한 왕비는 마치 기존의 귀네비어의 갈라져 나온 반쪽처럼 “당신만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없다”(no one could satisfy me as well as you; 264)며 아서왕만을 독점하려 한다. 그리고 그 왕비에 의해 란슬롯을 대동하고 갈레훗의 궁정으로 쫓겨난 귀네비어에게는 자연스레 나머지 절반의 역할인 란슬롯의 연인이라는 관계만이 남겨진다. 갈레훗의 궁정에서 귀네비어는 더 이상 두 남성 사이에



갈라지는 몸이 아니다.

란슬롯만을 위한 몸이라는 왕비의 새로운 정체성은 갈레훗과 란슬롯이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갈레훗은 란슬롯에게 귀네비어의 곤경이 그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임을 상기시킨다.

그녀가 이리로 와 소를루아만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모든 땅의 여주인이 되도록 하게. 그러면 그대들은 자주 함께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밤늦게 은밀히 하는 만남도 당당히 즐길 수 있을 테지. 그리고 만약 그대들의 행복을 비난이나 죄 없이 계속 즐기고 싶다면, 둘이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네.

Let her come here and be lady not only of Sorelois but all the land of which I am lord. Then you could often be together and openly enjoy the contact that must now come late and in secret. And if you wanted to go on enjoying your happiness without blame or sin, you might marry.  
(248)

갈레훗과 란슬롯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는 란슬롯이 귀네비어의 몸에 대한 유일한 접근권을 확보하여 당당히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최종적으로는 결혼을 통해 그녀를 독점함으로써 완성된다. 이 미래는 비단 란슬롯에게만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갈레훗은 『산문란슬롯』 안에서 란슬롯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지나친 독점욕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일찍이 란슬롯과의 우정을 얻기 위해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을 포기하고 아서의 휘하로 들어갔으며, 란슬롯이 자기 곁을 떠날 것이 두려워 그를 반강제로 섬에 가두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갈레훗이 귀네비어에 대한 고발을 받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왕비가 왕과 갈라지게 된다면 그는 확실하게 란슬롯을 자기 곁에 더 오래 잡아둘 수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because he could surely keep Lancelot with him for a longer time if the queen were separated from the king; 248). 갈레훗의 궁극적인 의도는 귀네비어를 통해 란슬롯을 소유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가웨인은 란슬롯이 진짜 귀네비어를 따라 로그레스를 떠나가는 것을 두고 “그가 갈레훗의 모든 힘을 가진 만큼”(since he has all the power of Galehaut; 274) 장차 아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귀네비어가 소를루아 궁정에 머무르고 그녀 주위에 란슬롯과 (란슬롯을 따르는) 갈레훗이 결집함으로써 아서의 궁정과 유사한 구조의 새로운 남성 권력이 형성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일찍이 귀네비어가 아서와의 혼인을 통해 로그레스와 레오다간이라는 두 남성 세력 간 연결을 체현했듯이, 이제 그녀는 란슬롯과의 사랑을 전면에 두는 듯 하면서 실은 갈레훗과 란슬롯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갈레훗의 욕망은 왕비의 이 공유될 필요 없는 몸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위의 갈레훗의 말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가 구상하는 란슬롯

과 귀네비어의 관계가 “비난이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without blame or sin) 것, 심지어 결혼 제도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적법한 사랑이라는 사실이다. 란슬롯, 귀네비어, 갈레훅이 이루는 새로운 삼각구도가 이전 아서·귀네비어·란슬롯의 관계를 대체함에 따라 란슬롯과 귀네비어의 간통관계가 갖는 반사회적 힘은 안전하게 교화된다. 갈레훅과 귀네비어가 함께 란슬롯을 사랑한다는 새로운 긴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최소한 여기서 여성의 몸은 복수의 남성의 욕망에 따라 분열되거나 정절의 규범을 깨트릴 일이 없다. 왕비의 간통이라고 하는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짜 귀네비어의 몸은 어찌 보면 남성의 양자택일(either/or)과 안정성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다고 읽을 수 있다. 맥크라켄은 로맨스 장르 내 여성의 몸이 갖는 “육체의 정치학”(body politics)을 살피면서 국가의 사회·정치적인 불안과 안전이 각각 왕비의 몸이 성적으로 위협받는 상황과 정절을 유지하는 상황을 통해 상징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왕비의 몸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왕 이외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상황은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국가질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긴장을 초래한다. 이에 텍스트는 여성이 복제될 수 있는 몸이라는 가능성을 이용하여 로그레스에는 아서만을 사랑하는 귀네비어를, 소를루와에는 란슬롯만을 위한 귀네비어를 각각 두려고 시도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정숙하지 못한 왕비의 몸이 자아내는 불편함은 일시적일지언정 완화되고 일원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두 남성을 위한 두 몸’이라는 대칭적 구도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텍스트 안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방향의 남성적 필요가 함께 존재한다. 귀네비어를 통해 란슬롯을 아서 곁에 붙잡아 놓으려는 로그레스 궁정의 동성유대적(homosocial) 욕망이 그것이다. 이브 셋지윅(Eve Sedgwick)은 문학 작품 속 남성·여성·남성의 삼각관계 구도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이성애 관계보다는 가운데 낀 여성을 통한 두 남성 간 연결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남성들의 동성유대적 욕망과 가부장적 힘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구조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므로”(here is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male homosocial desire and the structures for maintaining and transmitting patriarchal power; 25), 삼각관계는 남성중심적 질서를 공고히 하면서도 남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동성애적 위험성을 피해가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자신을 통해 결과적으로 란슬롯을 아서의 휘하에 묶어 두는 귀네비어만큼 “남성과 남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 교환 가능한, 아마도 상징적인 소유물”(exchangeable, perhaps symbolic, property . . . of cementing the bonds of men with men; 26)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잘 드러내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귀네비어가 왕비를 향한 두 욕망 중 하나에만 응함에 따라 아서와 란슬롯의 서로를 향한 지향성도 어긋나고, 결국 란슬롯은 진짜 귀네비어를 따라 로그레스를 떠나게 된다. 이를 두고 아서가 표하는 슬픔에서도 드러나듯 란슬롯과의 결별은 아서에게는 왕비의 축출보다도 더

심각한 상실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두 남성 사이에서 둘의 욕망을 모두 받아들이는 몸, 귀네비어의 간통하는 몸이 있어야 한다. 결말부에서 진짜 귀네비어와 아서의 재결합보다도 란슬롯의 로그레스 귀환이 훨씬 자세히 서술된다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귀네비어를 통해 재개되는 남성 간 연결임을 시사한다.

이것이 브룩로즈가 지적했듯이 여성의 존재가 남성 간 교류 속에서 기표처럼 사용되는 순간, 남성의 사회적인 관계의 문법이 여성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한 예가 될 것이다. 남성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일방적으로 부여받고 그것을 표상하는 여성은 (기외와 기표의 관계가 정신과 몸의 관계로 환유될 수 있듯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또 다시 육체성의 차원으로 환원된다. 남성사회의 규칙, 가치, 위계가 여성의 “육체라는 견고한 언어”(the concrete language of the body; Bordo 90)를 통하여 강화되며 가시성을 얻는 것이다. 귀네비어가 가짜에 밀려 축출되고, 다른 궁정에서 새로이 여주인 역할을 하다가, 결국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플롯은, 아서와 란슬롯의 결별, 란슬롯과 갈레호트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적 질서의 독립, 그리고 그것의 재결합이라는 남성사회의 변화와 연동한다. 동시에 이는 왕비의 불륜을 저지르는 몸이 두 남성관계에 각각 대답하는 일면적인 두 몸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여성을 통해 남성 간 연결을 공고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몸을 완벽히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질서의 두 맞부딪히는 충돌이 반영되어 있다.

### 기표의 반란: “대담하게 말하는” 여성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짜 귀네비어 에피소드는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몸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절묘하게 드러낸다. 분열되고 이동하고 재통합되는 귀네비어의 몸은 그 자체로 남성의 서사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기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성인물에게 이렇게 남성적인 의미가 각인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여성이 침묵하는 기표로만 치부될 수 없는 지점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브룩로즈는 여성과 언어는 둘 다 말하는 주체인 남성에 종속됨으로써 의미를 부여받고 사회적 행위를 매개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현상의 가장 큰 역설은 언어는 늘 말해질 뿐인 반면 여성은 그 언어를 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기표와 기의가 완벽하게 분리되는 언어와 달리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순수 기호로는 환원될 수 없다는 데 있다(Levi-Straus 61). 그렇기에 여성의 저항은 남성의 언어와 달리 육체적이고 “징후적인 기표”(symptom-signifier; Brook-Rose 308)를 사용하는 여성의 발화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번즈에 따르면 여성인물의 발화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순종적으로 답습하는 남성복화술(ventriloquism)인 경우조차, 그 목소리가 “여성인물의 해부학적 신체에 의해 투과

된”(filtered through the female character’s anatomy; *Bodytalk* 17) 것이며 여성을 화자로 만든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빌려온 말하기를 그 이상의 무언가로 전환하는”(turning their borrowed speech into something else; 18)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볼 때 가짜 귀네비어 사건이 여성의 “대담하게 말하기”(speaking boldly)로 막을 연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귀네비어를 고발하기 위해 아서를 찾아온 클리스는 궁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하며”(she spoke loudly enough for them all to hear her as she said boldly), “젊은 여성이 이토록 대담하게 말하는 것”(the young woman speaking so boldly; 245)에 청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 문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하다’(speak, say)라는 동사가 무색하지 않게, 클리스는 이 로맨스 전체를 통틀어 어떤 여성보다 더 길고 충격적이며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강조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적 미덕인 아름다움이다. 클리스는 일회성의 인물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는 주요 여성인물에 대한 묘사보다 훨씬 공을 들여 그녀의 미모와 화려한 옷차림을 그려낸다. 그것으로 모자라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여태껏 덮고 있던 베일을 끌어내려 그것을 땅에 내던지는”(she pulled off the wimple still covering her head and threw it to the ground; 245) 공격적인 태도로 자신의 미모를 과시한다.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몸은 그 몸에서 토해져 나오는 대담한 언어와 대조를 이루며, 이에 남성들은 “누구도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no one uttered a word; 247) 거뭇 “말문이 막히는”(dumbfounded; 245, 246) 지경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허용되는 제스처로 베일을 걷어 그녀가 드러내는 몸은 기실 가짜 귀네비어가 “나의 심장과 혀가 될 것”(be my heart and my tongue)이라 말하고 아서 또한 “그대는 그대 여주인의 심장과 혀를 품었다”(you bear her heart and tongue of your lady; 246)고 묘사하는 몸, 왕궁을 뒤흔들 언어를 신체 부위에 품고 온 몸이다.

가짜 귀네비어 또한 왕의 앞에서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spoke loudly enough to be heard by everyone; 262) 대담한 발화자이다. 그녀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주었던 것”(that my father gave me to you)을 언급하며,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를 묘사하는 언어를 통해 가상의 관계를 창조한다. 동시에 그녀의 언어는 자신의 몸을 도유식과 대관식을 통해 남성에게 의해 의미가 부여된 몸, 왕과 “참된 결혼관계로 맺어져”(in true wedlock) 그와 첫날밤을 지낸 몸으로 재구성한다. 즉 그녀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관습적인 문법을 답습함으로써 남성 사회 속에 자신의 자리를 날조하고 적법한 여성인 진짜 귀네비어의 위치를 변화시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왕이 소실과 함께 사는 것은 적법한 일이 아니므로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you do not deserve to be king, for it is not proper that a king should live with a concubine; 246)는 비난으로 왕의 적법성까지 공격한다. 같은 맥락에서 클리스는 아서가 궁정의 기반인 원탁을 가질 자격이 없으며 원탁의 기사들 또한 “그 이름을 포기해야 한다”(must give up that name; 247)고 욕박지른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발언이 성공함에 따라 (즉 아서가 가짜 귀네비어의 말을 믿게 됨에 따라) 오히려 가짜 귀네비어가 경고했던 바, 다시 말해 왕이 첩을 위해 정실을 내침으로써 강력한 자신인 란슬롯을 잃고 자신의 목숨도 위협받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가짜 귀네비어는 귀네비어가 선물로 주어진 존재이며 그녀의 소유를 통해서 원탁과 궁정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아서를 공격하는 데 이용한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교환의 논리를 통해 그 논리가 작동하는 장인 궁정과 교환의 주체인 아서를 함께 위협하는 것이다(Rockwell 44).

이를 통해 가짜 귀네비어가 드러내 보이는 것은 가짜와 진짜 귀네비어 간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논리와 그것이 작동하는 남성적 세계관 자체의 취약성이다. 가짜 귀네비어는 자기 몸을 왕비의 그것으로 구성하고 왕비의 자리에 스스로를 놓음으로써 여성을 몸이자 대상으로 축소하는 남성적 문법을 충실히 실천한다. 로그레스 궁정의 삼각관계와 연결지어 볼 때 가짜 귀네비어의 등장은 또한 그 자체로 왕비의 간통하는 몸을 해결하려는 남성적 의도에 기여한다. 그런데 이렇듯 남성중심적 논리를 충실하게 따른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똑같은 몸이면 똑같은 여성이 되며 같은 자리에서 같게 사용되면 구별할 수 없는 가짜 왕비의 존재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짜 귀네비어가 경고하는 것은 여성의 침묵하는 몸에 의존하여 성립된 궁정 혹은 남성사회가 여성을 몸으로만 취급하는 바로 그 논리로 인해 자멸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 언제든지 가짜 귀네비어와 같은 존재에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는 여성인물이 개별성을 잃고 단순한 몸으로 치환될 때 가부장제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증언하고, 그를 통해 역설적으로 여성에게 같은 몸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진짜 귀네비어의 발화 또한 남성중심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이념이 오히려 그 질서를 위협한다는 역설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짜 귀네비어가 아서만을 위한 몸이며 삼각관계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남성 이데올로기에 기여한다면, 간통하는 몸인 귀네비어는 또 다른 남성적 지향인 동성유대적 욕망과 연결된다. 일례로 귀네비어가 갈레훗과 란슬롯의 호위를 받아 소를루아로 출발하는 아침, 아서는 귀네비어에게 란슬롯이 그녀와 함께 떠나는 대신 궁정에 남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서는 왕·왕비·기사가 구성하는 삼각관계의 상호 의존성과 왕비가 갖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의식하고 이용하려는 것이다(McCracken, *Romance of Adultery* 102). 에피소드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따라간다면 귀네비어는 이러한 남성적인 요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갈레훗과 란슬롯이 가짜 귀네비어가 죽은 뒤에도 소를루아에서 셋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데 비해 귀네비어는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자 곧바로 로그레스의 궁정에 돌아가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귀네비어와 함께 로그레스를 떠났던 란슬롯이 아서와 화해하는 것 또한 궁정에 돌아온 귀네비어의 중재를 통해서이다.

번즈가 지적하는 여성인물 말하기의 역설이란 텍스트가 이런 남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귀네비어에게 부여한 목소리가, 결과적으로는 남성 간 관계를 보강하는 매개의 역할에 온전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위에 언급한 아서왕의 부탁에 대해 귀네비어는 ‘아니오’(no)라는 그녀로써는 드물게 단호한 부정을 통해 거절을 표한다.

왕비는 허둥대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여 명민하게 답했으나, 왕이 자신과 란슬롯의 사랑을 깨달았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폐하, 란슬롯이 다른 이를 위해서는 하지 않을 일을 저를 위해 기꺼이 한다면,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그가 저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한,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오, 저는 폐하께서 부탁하신 대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 queen was not flustered in her answer, but quick-witted and alert, for she feared that the king had become aware of the love she shared with Lancelot. “My lord,” she said, “I must really love Lancelot if he is willing to do for me what he would not do for anyone else; . . . and as long as I know that he loves me most, I need to take care, for that very reason, not to provoke him. No: I will not do as you say.” (274)

이를 통해 귀네비어는 자신은 소를루아에 머무르면서 란슬롯만을 아서 곁에 남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물리적으로 왕궁에 귀환할 때에만 이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자신과 란슬롯의 사랑을 잘 숨겨서 유지하기 위한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란슬롯·아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크게 보아 삼각관계를 통해 남성연결을 강화한다는 동성유대적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귀네비어는 왕에게 정면으로 ‘아니오’라고 논박할 발언권과, 나아가 왕과 기사 사이의 연결을 직접 통제할 힘을 얻는다.

실제 에피소드의 말미에서 귀네비어가 란슬롯과 아서의 재결합을 성취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그녀는 궁에 돌아가기 앞서 긴 구술을 통해 두 남성의 화해를 계획하며 언제 란슬롯이 왕 앞에 나타나고 어떻게 왕의 간청을 받아들일지를 세세하게 그려낸다. 귀네비어가 계획한 화해의 장에서 그녀의 언어는 아서에게 란슬롯의 분노를 허구로 묘사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란슬롯에게 거짓 애걸을 자아내며 상황을 조정한다. 이러한 연극적인 발화는 그녀가 란슬롯에게 “왕이 이르는 바”(his bidding)를 거부하고 “갈레훗



과 내가 그대의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는”(until Galehaut and I have fallen at your feet; 280) 그 뜻을 굽히지 말라고 지시하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란슬롯은 이를 필사적으로 거절하지만 “감히 그의 여주인의 뜻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not daring to oppose his lady’s will; 280), 결국 귀네비어는 물론 궁정의 모든 신하와 귀부인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귀네비어는 자신을 낮추는 장면을 묘사하고 또 실행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란슬롯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그녀의 의지를 관철 시킬뿐더러, 란슬롯을 일순 아서와 같은 위치로 끌어올림에 따라 로그레스라는 남성질서의 위계를 다시 쓰는 것이다.

그녀의 발화는 이렇듯 란슬롯과 아서 사이의 거리를 늘이거나 줄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은 쇼를루아에 도착한 직후 그녀가 란슬롯에게 하는 말과 연계하여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아서의 간청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란슬롯을 로그레스의 궁정에서 빼앗아 온 귀네비어는 막상 쇼를루아에 이르자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여 란슬롯으로부터 거리를 취한다.

이것이 그대가 보는 대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나는 내 잘못의 결과로 내 남편이신 왕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 내가 그와 마찬가지로 왕관이 씌워지고 성유가 부여된 그의 적법한 아내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 나는 남편 외의 남자와 침대에 든 죄로 인해 화를 입은 것입니다. … 이제 그대의 나를 향한 고귀한 사랑을 두고 청하건대, 지금부터 내 권유 없이 나로부터 입맞춤이나 포옹 이상을 구하지 마세요. 여기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한 그대는 오직 그 만큼만을 나로부터 취할 수 있습니다.

This is where things stand, as you see: I am separated from my husband the king as a result of my misdeed . . . not that I am not his lawful wife and just as crowned and anointed as he . . . but I have been hurt by the sin of going to bed with a man other than my husband. . . .

I ask you, then, in the name of your great love for me, to seek no more of me from now on than a kiss or an embrace, if you like, unless at my invitation. This much of me, though, you still have as long as I stay here. (275)

가짜 귀네비어와 마찬가지로 귀네비어는 발화를 통해 자신에게 부가되는 여러 의미와 관계들을 취사선택하고 자기 몸을 재구성한다. 왕비를 정의하는 전형적 표현인 “왕관이 씌워지고 성유가 부여된” 몸의 묘사는 이 대목에서 곧바로 그녀가 “남편 외의 남자와 침대에 든” 사실, 란슬롯과 간통하는 몸이라는 서술과 결합한다. 여기서 귀네비어가 재현하는 자신의 몸은 아서의 적법한 아내이면서 동시에 란슬롯과의 연인관계 또한 포함하는 몸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가짜 귀네비어를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도 그 가짜 귀네비어의 존재가 암시하는 대상인 한 남성의 욕망에만 응하는 일면적 몸이 되기를 거부한다. 여기서 갈레훗과 란슬롯이 앞서 그랬던 소를루아의 독자적 질서, 곧 란슬롯이 귀네비어를 독점하고 아내로 취하는 계획은 정면으로 반박된다. 아서왕과 가짜 귀네비어가 부부의 연을 유지하고 육체관계를 나누는 것과는 반대로 귀네비어는 소를루아에 있는 동안 란슬롯을 위해 할당되어야 할 성적 호의를 거두어들인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을 죄나 위협으로 규정하는 남성의 논리를 따를 생각도, 자기 위치의 절반을 잃어버린 채 란슬롯만의 육체가 될 마음도 없다.

번즈는 로맨스 내 여성의 언어는 남성언어가 주된 특징으로 보이는 주객이나 자타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로맨스 속 여성은 그들의 발화를 통해 남성의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 식의 논리 대신 “이것과 저것 모두”(both/and)를 추구한다. 양자택일을 강요받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는 두 여성, 즉 말을 하는 것도 침묵을 지키는 것도 아닌 이니드(Enide)나 트리스탄과 마크 둘 다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두는 이조테가 그 예가 될 것이다(Burns 180, 209). 귀네비어의 행동은 이들의 저항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신이 갈레훗의 궁정에 머무르는 한 란슬롯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다시 말하면 아서와 란슬롯이 자기 몸을 함께 소유하지 않는 한 란슬롯에게만 소유되지는 않겠다는 말이 된다. 이에 그녀의 발화는 그녀에게 단순히 남성관계를 강화하고 구현하는 역할 이상의 차원을 부여한다. 귀네비어는 여성인 자신이 남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되는 대상적인 몸임을 인정함으로써, 두 남성과 관계하는 자신이 한 인물이되 두 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모순을 받아들임은 물론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녀는 두 남성에게 사랑받는 자신의 두 몸 중 어느 쪽도 잃지 않기 위하여 아서의 란슬롯에 대한, 또 란슬롯의 자기 육체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한다. 이를 통해 귀네비어는 두 남성 중 누구도 완전히 삼각관계의 통제권을 갖지 못하면서도 또 누구도 그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언제나 자신의 몸을 다시금 란슬롯·기네비어·아서의 삼각관계 속에 재위치시킬 수 있도록 포석을 마련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귀네비어는 단순히 두 남성에게 공유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개입과 발언을 통해 두 남성을 독점하는 몸이기도 한 것이다.

## 나가며

가짜 귀네비어 에피소드는 일견 단순하고 여성 혐오적으로 보이는 그 플롯 안에 여러 겹으로 복잡하게 얽힌 남성적 욕망과 여성에 대한 담론을 숨기고 있다. 텍스트는 남성 관계망 속에서 동일한 위치를 점하는 두 왕비를 제시함으로써 아서왕 로맨스가, 더 넓게는 그것이 바탕으로 하는 남성중심적 질서가 여성을 몸으로 재현하고 이용하는 기

본 원리를 드러낸다. 이것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함께 조명을 받는 것은 이 같은 남성질서에 내재하는 위험과 모순이다. 가짜 귀네비어가 몰고 오는 파란은 여성이 남성에 의해 쉽사리 혼동된다는 사실과 그러한 혼동이 어떤 식으로 남성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남성들의 서사인 로맨스가 기실 그 유지를 위해 여성의 침묵과 대상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의존의 방식은 결코 일관되지 않으며 (왕비에게 정절과 간통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역설에서 알 수 있듯) 그 안에는 남성의 서로 모순되는 필요와 방향성들이 위태롭게 뒤엉켜 있다. 두 귀네비어는 남성질서의 이러한 불안정함을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폭로하면서 텍스트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 물론 그들의 발화는 결과적으로는 텍스트의 남성적인 의도에 기여한다는 결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침묵하는 여성의 몸을 바탕으로 하는 남성중심적 욕망이 바로 그 침묵을 깨트리는 대담한 말하기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최대의 역설은 여전히 남는다. 가짜 귀네비어가 처벌받고 사라진 뒤에도 그녀가 궁정을 공격하여 노출한 남성질서의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질서를 답습하면서도 위협하는 두 왕비의 발화 또한 그 언어가 남성 질서 속으로 수렴된 다음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침묵하는 몸에 잠재하는 목소리로서 끝없이 반항을 일으킨다.

## 인용문헌

- Bordo, Susan. "The Body as the Reproduction of Femininity." *Writing on the Body*. Ed. Katie Conboy. New York: Columbia UP, 1997. 90-110.
- Brooke-Rose, Christine. "Woman as a Semiotic Object." *The Female Body in Western Culture*. Ed. Susan Rubin Suleiman. Cambridge: Harvard UP, 1986. 305-16.
- Burns, Jane. *Bodytalk: When Women Speak in Old French Literature*.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3.
- \_\_\_\_\_. "Which Queen? Guinevere's Transvestism in the French Prose *Lancelot*." *Lancelot and Guinevere: A Casebook*. Ed. Lori J. Walters. New York: Routledge, 1996. 247-65.
- Dickson, Morgan. "Female Doubling and Male Identity in Medieval Romance." *The Matter of Identity in Medieval Romance*. Ed. Phillipa Hardman. Cambridge: D. S. Brewer, 2002. 59-72.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Lacy, Norris J. ed. *Lancelot-Grail: The Old French Arthurian Vulgate and Post-Vulgate in Translation*. Trans. Carol J. Chase et al. Vols. 2-3. New York: Garland, 1993-96. New York: Routledge, 2010. 5 vols.
- Levi-Straus, Claude.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Claire Jacobson. New York: Basic, 1963.
- McCracken, Peggy. "The Body Politic and the Queen's Adulterous Body in French Romance." *Feminist Approaches to the Body in Medieval Literature*. Ed. Linda Lomperi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3.
- \_\_\_\_\_. *The Romance of Adultery: Queenship and Sexual Transgression in Old French Literature*.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8.
- Rockwell, Paul Vincent. *Rewriting Resemblance in Medieval French Romance*. New York: Routledge, 1995.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P, 1985.

## ABSTRACT

True, False, or “Two Queens”:  
The Female Body and Speech Represented in the  
False Guenevere Episode in *The Prose Lancelot*

Moonjin Kim

The false Guenevere episode in *The Prose Lancelot* reveals how medieval romances use female characters to sustain the male-oriented chivalric society. Guenevere is very easily confused with and replaced by the other Guenevere, her half-sister, only because of their identical appearance. The indistinguishable “two queens” show that the female identity in Arthurian romances is mainly based on her body, which functions both as an empty signifier and as an exchangeable property between men. However, the way the male society depends on women is by no means consistent, and the opposed demands on fidelity and adultery coexist on the queen’s body. The integrity of the queen’s body is paralleled with that of Arthur’s court, but at the same time, her adulterous love with Lancelot becomes a medium of the homosocial relationship between Arthur and Lancelot. Guenevere exposes these contradictory male desires by representing how her body is doubled, separated, and combined again.

In embodying the intention simultaneously to control and share the female body, the two queens yet refuse to be reduced to the passive and obedient objects. They support the patriarchal norms in the ironical way, by breaking the silence forced to them with the speech of beautiful female bodies. Just like their doubled bodies, two queens’ language cannot go beyond the boundary of the traditional femininity. Nonetheless, in accepting and following faithfully the misogynist standpoint, their voice paradoxically gets the power to threaten the male-oriented order and expose its instability. This leads to the dangerous truth that the male discourse, presupposing the speechless female body, is in fact maintained and reinforced by the bold speaking latent in that

silent body.

*Key Words* *The Prose Lancelot*, the false Guenevere, doubling, female body,  
female speech